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20년 2월 1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 10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2. 10.(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김홍주 과장(044-203-4360)	담 당 자	박정진 사무관(044-203-4369) 김희섭 주무관(044-203-4367)

- 「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」 결과 발표 -

- **'18년 연구개발 · 설비 등 총 투자금액 32.2조원, 전년대비 10.8% ⇑**
- **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36.2%, 전년대비 3.6%p ⇑**
- **18만명 신규채용 (청년일자리 11.2만명, 62.5%)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(회장 : 강호갑)는 4,468개 중견기업('17년 결산기준)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**2019년 중견기업* 실태조사**('18년말기준)」 결과를 발표함

* 중견기업 : 중소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으로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

○ 동 조사는 **중견기업 경영실태를 파악**하여 **중견기업 육성 정책 수립 시 활용**하기 위한 정부승인 통계로 '17년부터 산업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실시하고 있음

○ 이번 조사는 **중견기업 4,468개 중 응답한 1,400개 표본**을 대상으로 **'19.7~9월**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거쳐 '20.2월 발표함

<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개요 >

◇ **조사대상** :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('17년 결산기준) 상 중견기업 4,468개
◇ **기준시점** : 2018년 12월말
◇ **조사기간** : 2019년 7~9월
◇ **조사방법** : 면접, 전화, 팩스, 이메일 조사 병행 (표본조사)
◇ **조사내용** : 투자, 기술혁신, 금융 및 자금조달, 인력, 수출, 수위탁거래 현황 등
◇ **유효표본** : 총 1,400개사

투 자

○ **(실적) '18년 투자는 32.2조원으로 전년대비 3.2조원**(10.8%) **증가**

- 분야별로 연구개발투자는 8.0조원으로 전년대비 0.8조원 증가, 설비 투자는 24.2조원으로 전년대비 2.4조원 증가하였음

○ **(계획)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**(8.0조('18), 8.4조('19e), 8.7조('20e))

- 전체 투자계획 금액 중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(24.9%('18), 26.0%('19e), 27.0%('20e))

기술혁신

○ **(주력기술) 해당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**고 응답한 기업은 **5.8%로 매년 증가 중**

-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1.3%('15), 2.5%('16), 3.3%('17), 5.8%('18)로 증가 추세

○ **(지적재산권)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**고 응답한 기업은 **전년대비 7.8%p 증가한 50.5%**

- 평균적으로 비제조기업(20.2건)에 비해 **제조기업(91.6건)**이, 내수기업(19.8건)에 비해 **수출기업(98.0건)**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됨

○ **(산학협력) '18년에 대학,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경험이 있다**고 응답한 기업은 **전년대비 3.5%p 증가한 15.9%**

- 참여한 활동은 연구·기술개발(71.6%), 교육훈련(26.2%),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(18.6%) 순

○ **(신사업) 중견기업**의 **17.4%가 신사업을 추진**하고 있음

- 비제조업(11.5%)보다 **제조업**(26.6%), 내수기업(10.6%)보다 **수출기업**(29.4%)이 **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것**으로 파악됨

수 출

○ **(수출여부) 제조 중견기업 중 '18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68.8%**로 전년대비 **3.7%p 증가**

- 비제조업 포함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36.2%로 전년대비 3.6%p 증가

○ **(수출국)** 중견기업이 **수출하는 국가는 중국(56.5%), 미국(39.2%), 일본(33.1%), 베트남(24.0%), 인도(12.9%) 순**으로 응답함

- '18년에 신규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국가는 중국(13.0%), 베트남(12.6%), 멕시코(9.6%), 인도네시아(8.8%), 러시아(8.7%) 순

인 력

○ **(채용실적)** '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**18만 392명으로 조사됨**

- 청년(만 15~34세) 채용인원이 11.2만명으로 62.5%를 차지함

○ **(직무별 분포)** 전체 종사자 중 생산직 비중이 44.8%로 가장 높음

- 생산직(44.8%), 사무관리직(24.7%), 영업직(11.2%), 연구개발직(5.4%) 순

○ **(대졸 신입사원 연봉) 전년대비 135만원 증가한 3,282만원**

- 비제조업(3188.2만원)보다 **제조업(3427.6만원)이,** 내수기업(3173.8만원)보다 **수출기업(3471.6만원)이 높음**

기타

○ **(가업승계)** 가업승계 기업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**6.7%**

- 10.3%는 가업승계 예정, 82.9%는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응답함

○ **(수탁기업과 동반성장)**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위탁 중견기업은 **65.5%로 전년 대비 6.1%p 증가**

- 활동 내용은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(38.8%), 직원교육 및 교류(36.1%),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(31.1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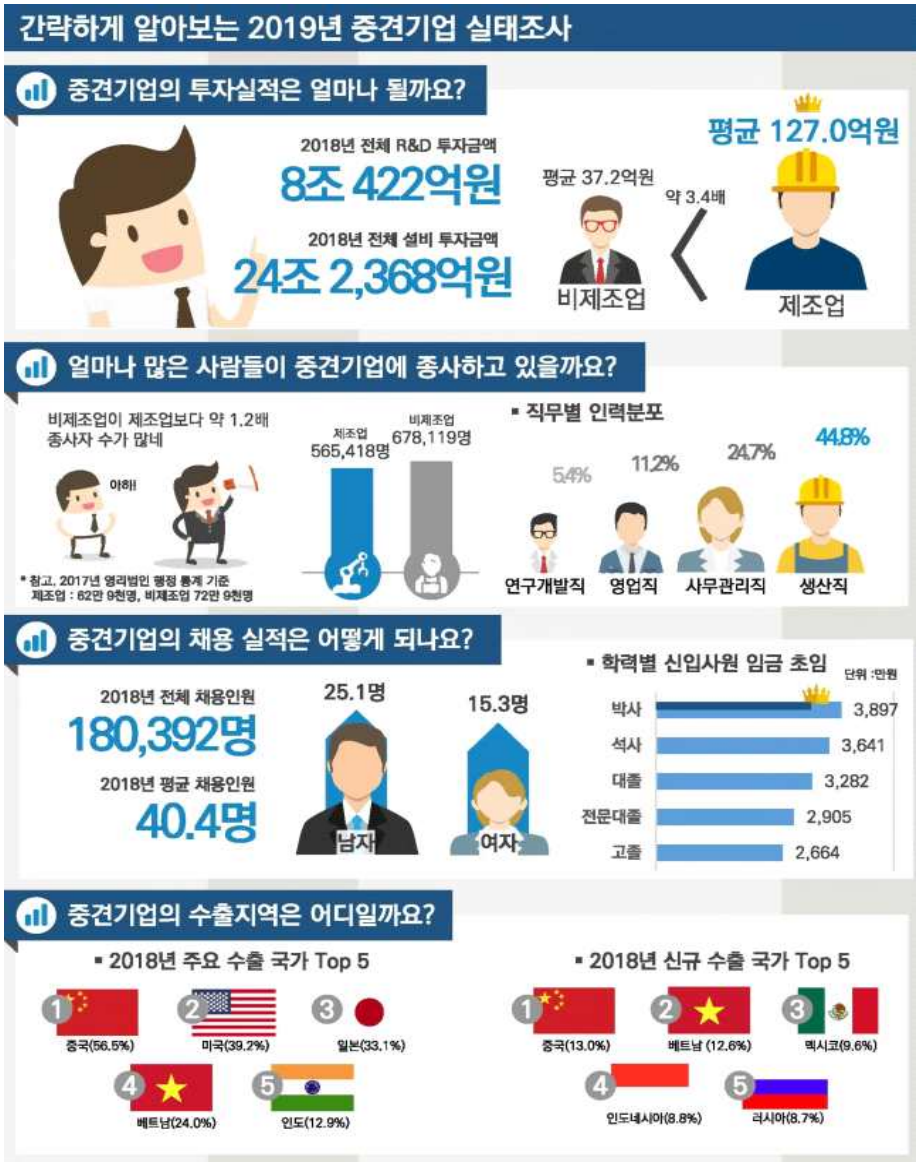
○ **(회귀검토경험)**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**5.1%**

- 회귀요인은 조세혜택(62.2%), 금융지원(15.8%), 판로규제(13.4%) 순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**중견기업**이 **신사업 창출**을 통해 **새로운 성장동력**을 **확보**하고 **글로벌 기업**으로 **도약**할 수 있도록 **맞춤형 정책**을 마련할 계획

○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**1/4분기 중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「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」('20~'24년)을 통해 발표**할 예정임

○ '20.1. 통계청이 발표한「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」(붙임)에 따르면 중견기업 수('18년말 기준)는 전년대비 167개 늘어난 4,635개로 전체 영리법인 기업수의 0.7%이며, 매출액의 15.7%, 고용의 13.8%, 수출액의 16.3%를 차지함



붙임. 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('20.1. 통계청 발표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박정진 사무관(☎044-203-4369), 김희섭 주무관(☎044-203-4367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18년 결산기준 중견기업 통계('20.1. 통계청 발표)

□ **중견기업 수는 '18년말 기준 4,635개로 전체 영리법인 중 0.7%**

○ 매출액 기준(업종별 400~1,500억원 이상)에 따른 규모기준 기업이 48.1% 차지

구 분	2015	2016	2017	2018
중견기업(개)	**3,558**	**4,014**	**4,468**	**4,635**
규모	1,706	1,795	2,123	2,228
피출자·관계	1,852	2,219	2,345	2,407

□ **매출·고용·수출** 등에서 경제기여도 **증가**

○ 전체 영리법인 매출액 중 15.7% 차지

구 분	2015	2016	2017	2018
매출(조원)	620(14.5)	639(14.5)	738(15.5)	767(15.7)
고용(만명)	115(-)	125(12.7)	136(13.6)	141(13.8)
수출(억불)	904(17.2)	851(17.2)	909(15.9)	982(16.3)

* 괄호는 영리법인 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

□ 중견기업 중 **제조업이 39.1%**(1,814개)로 대기업(21.1%, 495개), 중소기업(20.4%, 142,830개)에 비해 **매우 높은 수준**('18.)

* 전체 제조업중 기업수는 1.2% 차지 → 매출 20.8%, 고용 17.7% 차지

○ 비제조업 비중은 60.9%로 도소매업(15.1%), 정보통신산업(8.2%), 부동산(7.7%) 순